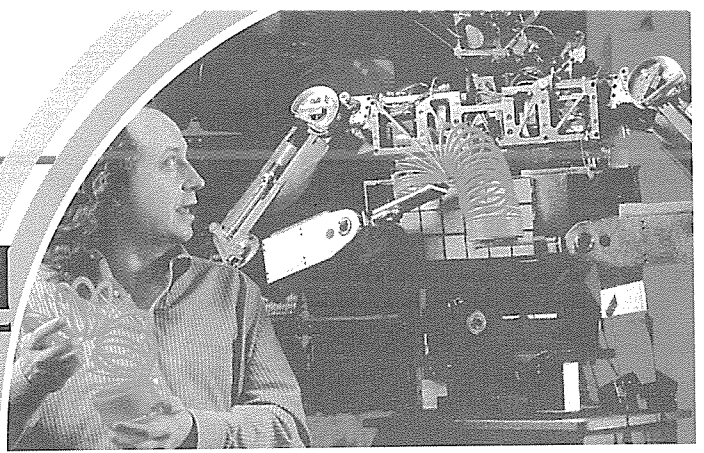


SF는 미래 예측 아닌 미래 창조



SF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가진 대표적인 선입견 중의 하나는 '미래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따금 터무니 없는 미래상을 묘사한 작품을 보면 SF로서 수준이 떨어진다고 폄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미래학자나 점쟁이, 예언가의 몫이다. SF작가는 자유분방한 상상력을 펼쳐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과 똑같다. 다만 나름대로의 설정이나 논리를 전개할 때 가능한 한 과학적 합리성을 지킨다는 정도일 뿐. 이런 합리성조차도 완전히 벗어던지면 그때는 SF의 영역을 벗어나 환타지가 되는 것이다.

SF가 미래 과학기술에 영향

아무튼 독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저 그 다양한 가능성들을 음미해보는 것이 SF를 즐기는 방법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SF에서 전개되어 왔던 미래상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서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 중에는 매우 흥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있는데, 바로 SF가 미래의 과학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이다. 이를테면 SF가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직접 만들었다고 할까. 대표적인 예로 로봇을 들 수

있다. SF에 등장하는 로봇과 우리가 실제 산업현장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로봇은 큰 차이가 있다. SF의 로봇들이 대부분 휴머노이드(인간형)인 반면에, 산업용 로봇은 외모가 인간처럼 생긴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의외로 산업용 로봇도 결국은 SF에 기원을 둔 듯이 보인다. 세계 최초의 산업용 로봇 제조회사는 1960년대 초 미국 코네티컷주에 설립된 '유니메이션'사이다. 오늘날 전 세계의 산업용 로봇시장을 형성하고 로봇공학의 물리적 토대를 제공하는데 이 회사가 결정적인 공헌을 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이 회사의 사장 조셉 잉겔버거는, 대학생 시절 SF작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쓴 「나는 로봇」이라는 단편소설을 읽고 로봇의 가능성에 눈을 떴다고 한다. '미래를 예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다 음은 2차대전 당시에 일어났던 좀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

1944년 어느날, FBI의 수사관들이 미국 뉴욕에 있는 한 싸구려 잡지사에 들이닥쳤다. 잡지의 이름은 「어스타운딩 사이언스 픽션(Astounding Science Fiction)」。 당시 미국에서 발간되던 통속적인 SF잡지중의 하나로

서, 유치한 그림의 표지와 조악한 지질, 말초적인 오락소설 등으로 채워져서 그다지 점잖은 대접을 못 받던 매체였다. 그러나 그들의 혐의는 국가기밀 누설이었다. 당시 미 군당국에서 극비리에 개발중이던 가공할 신무기가 그 잡지의 한 단편소설에 생생하게 묘사되었던 것이다. 문제의 작품은 클리브 카트밀이란 작가가 쓴 단편 「데드라인」이었고, 이 작품에서 묘사된 가공할 신무기란 다름아닌 원자폭탄이었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는 전쟁 당사국들이 결국 원폭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한다. 원폭의 위력이 너무나도 대단해서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끌어모아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극비리에 원폭을 개발중이었다. 그리고 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언론 매체에 그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 공개를 막았고, 심지어 과학잡지에서 학술적인 주제가 되는 일도 교묘하게 방지했다. 그러나 SF잡지는 아무런 통제나 공작도 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유치한 SF작가나 독자들 따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핵무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논의했던 사람들은 SF잡지와 그 독자들 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싸구려 SF잡지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 보

**SF는 미래의 과학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SF에 처음 등장한 로봇이 실제 산업현장에 나타났으며
미국에서 극비로 개발중이던 원자폭탄도
SF잡지가 먼저 단편소설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한 바 있었다.**

안 당국이 혼비백산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그 작가는 어디까지나 공공 도서관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물리학 이문서들만을 참고하여 작품을 썼을 뿐이다. 나머지는 오로지 작가의 상상력만으로 채워진 것이다. 보안 당국에서는 결국 이 사건이 순전히 우연의 일치, 아니 SF작가의 상상력에 기인한 필연적인 우연(?)임을 깨달았다. 어쨌거나 당시 SF독자들은 상당히 어께가 으쓱해졌다고 한다.

사실 「테드라인」 이전에도 이미 핵무기나 원자력을 상세하게 묘사한 SF소설은 여럿이 있었다. 핵무기가 전 세계에 대량 확산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은 일찌기 1941년에 어떤 SF작가가 예언한 바 있고, 그보다 앞선 1940년에는 원자력발전소의 노동자 문제를 다룬 작품이 나오기도 했다.

또 1942년 9월호 「어스타운딩 SF」에는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를 다룬 '과민성(Nerves)'이라는 작품이 실렸는데, 이 해는 원자력발전의 핵심 기술인 핵분열의 제어 실험에 겨우 성공한 해이다. 당시 그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존 캠벨은 오늘날 현대 SF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편집자로 평가받고 있다. 스스로가 뛰어난 SF작가였던 캠벨은 MIT를 나온 수재였으며, 어릴 때부터 SF에 흠뻑 빠져있다가 27세에 SF잡지사의 편집장이 되었다. 그는 그 뒤 과학과 문학의 수준높은 결합에 지

대한 공헌을 세워 현대 SF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남들은 '유치한 싸구려'라고 폄하해도 그는 꾸준히 SF의 질적 향상에 힘썼다. 진짜 엉터리 작품들은 거절하고 과학기술과 인간, 사회의 영향을 탐구하는 진지한 작가들만 선별하여 거듭거듭 고쳐쓰도록 수련을 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 그의 밑에서 성장한 작가들은 훗날 SF의 초일류 작가군을 형성하게 된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앞서 언급한 「나는 로봇」의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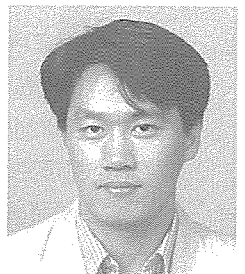
SF작가 상상력, 과학자 뛰어넘어

이렇듯 SF작가들의 자유분방한 상상력은 때때로 과학자들이 미치지 못하는 창조적인 영역까지 뻗어나간다. 그리고 그런 과감한 상상력이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2001년 우주의 오딧세이」를 쓴 아서 클라크는 세계적인 SF작가이자 미래학자이기도 한데, 그는 뛰어난 과학자들조차도 때로는 완고한 보수성을 고집하여 오히려 과학기술 발달에 장애가 될 때도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서 기관차나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 학자들은 '시속 30Km만 넘어가면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질식하고 말 것이다'라고 엄숙하게 선언했다고 한다. 또 20세기 초반까지 거의 모든 과학자들은 '공기

보다 무거운 물체는 결코 하늘을 날 수 없다'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있었다. '비행기'를 발명하려는 '바보같은 사람들'을 비웃으며 하는 말들이었다. 당시 미국의 저명한 천문학자였던 사이먼 뉴컴은 대표적인 비행기 불가론자였는데, 그의 생각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이트형제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그러자 뉴컴은 '비행사 한명 정도 무게 이상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고 한다. 우주 여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딱 막힌 과학자들이 있었다. 1950년대 중반에 영국 왕립 천문대장을 맡게 된 리처드 울리박사는 '우주여행이란 허튼소리'라고 코웃음을 쳤던 인물인데, 바로 그 다음 해에 소련에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는데 성공했다. 아서 클라크는 이상과 같은 예들을 들면서 '저명한, 그리고 나이가 지긋한 과학자가 어떤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면 그건 거의 옳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상당히 시니컬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과학도 넓은 의미에서 창조적인 예술행위라면, 바로 그 최일선에서 자유분방한 상상력을 펼치는 사람이야말로 SF작가들이 아닐까? ①



朴相俊
(SF/과학해설가)